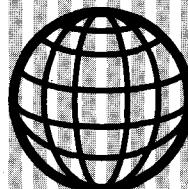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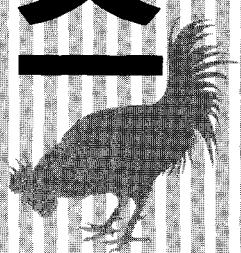


WORLD

POULTRY NEWS



해외양계 뉴스



세계

세계 닭고기 무역량 4%감소

지난해 닭고기 수출입 물량이 4%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주 원인은 지난 1998년 8월 소련의 모라토리엄으로 인한 수출의 감소가 주원인으로 분석되었는데, 세계식량기구(FAO)에 의하면 1998년의 닭고기 무역량은 1997년의 물량과 비슷한 590만 톤으로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세계 닭고기 가격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역량이 줄어든 원인중의 또다른 하나는 불확실한 경제성장 관망으로 경제분위기가 침체된데 있었지만 외중에 중국,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수출입 활동이 활발했던 반면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는 과잉생산으로 수입물량을 줄이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PI)

영국

닭분뇨로 전기에너지 발생

최근 영국의 한 회사에서는 닭의 분뇨를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농장에서 발생하는 계분은 비료로만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왔으나 이 회사는 가금류의 분뇨 및 도태된 닭을 소각시키는 대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환원해 65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영국정부는 이러한 천연 자원을 이용해 영국내 전기에너지의 10%를 충족시킬 계획을 구상중에 있으며 영국내 광우병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일정량의 소를 소각시킬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데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에서 발생하는 연간 2천만톤의 가금류 폐기물에도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독일

보슬비를 좋아하는 닭

독일의 농림부는 근래에 들면서 케이지 사육 금지 조치와 관련, 지난 1997년 봄부터 1만수의 닭을 대상으로 케이지에서 사육되어

지는 닭과 야외에서 길러지는 닭들 중에 어느 쪽이 더 행복한가에 대한 연구를 대학교를 통해 연구해왔으며 연구가 끝나는 올해 초 정확한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쪽이 행복한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연구도중 밝혀진 닭의 행동을 보면 오전 10시 이전에 대부분의 닭(1만수 중 8천개의 계란을 생산)이 계란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야외에서 방생한 닭의 경우 계란을 낳고 45분 정도는 놓은 알 근처에 머물다 외부를 배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닭들은 강한 햇빛을 가장 싫어하고 돌 아다니는 것 보다 응기종기 모여있는 것을 더욱 좋아하며, 특히 보슬보슬 내리는 보슬비를 무척 좋아하는 것으로 연구결과 밝혀졌다고 발표하였다.(PI)

미국

1일 1개의 계란 OK, 미의약협회 발표

미국계란협회는 지난 해 4월 21일 미국의약 협회 회보에 계란과 심장병과의 상관 관계를 연구, 발표한 내용을 크게 홍보하면서 계란소

비 촉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에서 117,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발표한 이 논문에서는 '하루 한개의 계란을 매일 섭취하는 사람은 심장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비에 대한 인식은 계란속에 함유되어 있는 콜레스테롤로 인해 심장병을 유발 할 수 있



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1주일에 3-4개 정도의 계란을 섭취하면 충분하다는게 지배적인 생각이었고 그렇게 홍보해 왔던게 사실이었다.(AE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근교 대규모 도계장 건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근교에 대규모 도계장이 건설될 것으로 관계자는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자카르타 주변에 상존해 있는 1,000여개의 소규모 도계장으로 인해 유통사정이 취약하고 위생 시설이 완벽하지 않은 관계로 정부의 도움을 받아 시급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도계장의 규모는 1일 30만수의 닭을 처리할 수 있으며 차후 충분한 자금과 땅이 확보되는 대로 4개의 도계장을 추가로 짓을 것이라 밝혔다.(APM)

태국

지난해 닭고기 수출 감소

지난해 태국의 닭고기 수출량은 지난 1998년에 비해 1만여톤이 감소한 27만톤이 될 것으로 지난해 태국의 닭고기 수출량은 지난 1998년에 비해 1만여톤이 감소한 27만톤이 될 것으로

닭고기 가공협회에서 발표하였다.
비록 수출량은 감소하였으나 지난해 수출실적을 보면 가공육은 증가하는 반면 생육(냉장 및 냉동 닭고기)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공육은 943톤이 늘어난 70,000톤으로 나타났고 생육은 20,776톤이 감소한 200,000톤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 수출 실적을 보면 유럽지역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일본으로의 수출은 감소하였다. 유럽 증가의 주요국은 독일과 영국인 것으로 나타났다.(APM)